불교학 원효 · 4차산업 연구 논의 '활발'
문화재 不通 정책 · 부실 보전 등 '비판'

2017 학술 · 문화재 결산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부터 4차산업 혁명까지 학술 '호재'
대행선연구원 창립 첫 학술대회

불통 문화재청, 불교계와 갈등
도난 성보 환수는 '현재진행형'
위례 보존센터 설립 첫 삽 성과


지난 8월 24일 첫 삽을 뜬 위례 불교문화유산센터의 내부 조감도. 최초 성보 문화재 종합병원이 될 센터는 괘불을 보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될 전망이다.



대행선연구원이 지난 5월 19일 개최한 첫 학술대회의 종합토론 모습. 이날 학술대회에는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불교학회가 12월 2~3일 개최한 '4차산업과 불교' 주제 발표 전경. 개최식에만 8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강의실엔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2017년 불교학계와 문화재계는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다. 학계는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이라는 큰 호재가 있었고, 사회적 이슈가 된 4차산업을 불교와 접목해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화재계는 갈등과 성과 사이에서 온도차가 확연했다. 도난 성보 환수와 위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첫 삽을 뜨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문화재청과 조계종의 갈등이 2017년 시작부터 나타났던 해이기도 했다.

원효 · 4차산업이란 '쌍두마차'

올해 불교학계는 '원효'와 '4차산업'이라는 두 가지 대형 이슈가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관련 대형 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이 3월~ 6월 사이 한 · 중 · 일 3개국을 순환하며 개최한 대규모 국제학술세미나였다.

'원효 스님'을 주제로 한 · 중 · 일 3국을 순환하는 대형 학술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효 스님에 대한 학술적 논의 범위를 동아시아로 확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각의 원효 스님 관련 논문을 공모해 수상 논문들을 중심으로 5월 12일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한국불교문인협회(회장 선진규)와 화성문화원(원장 고정석)은 지난 4월 22일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화성불교문화유적 학술발표회를 열고, 원효 스님의 오도처가 당항성(現 화성)이라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상반기가 '원효'에 집중됐다면 하반기 학술 이슈는 단연 '4차산업'이었다. 이를 주도한 것은 한국불교학회였다. 한국불교학회는 생소한 '4차산업'을 연구 · 연찬하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5회에 걸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스마트 시티 △가상 및 증강현실(VR · AR)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2~3월까지 '4차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당시 학술대회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참여자가 몰려 눈길을 끌었다.

대행禪 연구 본격화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한마음선원 창건주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을 조명하기 위한 첫 학술대회가 개최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8월 창립된 대행선연구원은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9일 안양 한마음선원 3층 대강당에서 '대행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1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행선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前동국대 역경원장 월운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동국학원 이사 법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을 비롯해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선원 문도 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행선연구원은 2020년까지 대행선의 학술적 이론을 닦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온탕, 냉탕 오갔던 문화재계

문화재계는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던 한 해였다. 2017년의 시작은 문화재청의 불통 행정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은 지난 1월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 문화재청은 관료조직에 안주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는 등 소통에 취약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문화재청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연구용역은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반대해왔던 환경단체의 연구소가 맡았으며, 연구 역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포진돼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본지를 비롯한 교계 언론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도 문화재청은 '문제없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해 문제가 됐다. 첨예하게 이어져 오던 갈등은 결국 지난 3월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문화재 행정들이 잇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해남 미황사 천불도가 부실 복원됐다고 알렸다. 또한 사찰 목조문화재 화재 보험 미가입 · 방재시설 부실 등도 문제가 됐다.

문화재 행정에 대한 문제와 갈등은 많았지만, 불교계 자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도난 성보 환수를 위한 사업들은 꾸준히 이뤄졌다. 1989년 도난됐던 부여 무량사 금동불을 비롯해 1988년 경북 고성 옥천사에서 도난됐다가 미국 경매 시장에 출품됐던 나한상도 조계종과 정부의 노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불사가 첫 삽을 뜬 것도 주요한 성과다. 지난 8월 24일 기공식을 가진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13,172㎡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된다. 국고와 자부담을 포함한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불사로 오는 2019년 완공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대형불화'인 '괘불'을 전문으로 보존처리하는 기관으로 계획됐다. 현재 한국에는 괘불을 전문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무하다. 하지만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현재 가장 큰 괘불인 보은 법주사 괘불탱(16m)을 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완공될 경우 지정뿐만 아니라 비지정 불교 문화재, 일반 성보까지 진단, 보존처리 등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오대산사고본 실록 · 의궤 복제본 기증

문화재청 · 평창군, 22일 월정사서 기증 협약식



일제강점기 당시 반출됐던 월정사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복제품으로 월정사로 돌아갔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12월 22일 낮 12시 30분에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오대산사고본(五臺山史庫本)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복제본 기증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기증식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월정사 오대산사고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인 '오대산사고의 기록문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특별전'에 오대산사고본(五臺山史庫本)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복제본을 활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강제 반출돼 1932년 경성제국대로 이관됐던 실록(27책)과 함께 지난 2006년 일본 도쿄대로부터 환수한 실록(47책) 등 총74책의 실록과 2011년 일본 궁내청으로부터 환수한 의궤(167책)중 26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복제 사업을 진행했다. 앞으로 제작하게 될 조선왕조의궤 복제본도 차례로 평창군에 기증할 예정이다.

강원도 평창에 자리한 오대산사고(사적 제37호)는 임진왜란 이후 건립된 조선 후기 4대 사고 중 하나이다. 오대산 사고에 보관 중이던 실록과 의궤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다 2006년(실록)과 2011년(의궤) 국내로 환수됐다.

이번 기증에 대해 평창군은 "복제본의 관리단체를 월정사로 지정하고 복제본을 오대산사고 전시관에 전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기록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청 누리집, 새 모습으로 단장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문화재와 관련된 정책소식, 행사안내, 활용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 누리집(www.cha.go.kr)을 새롭게 개편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화재청 누리집은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대표 매체로서 메뉴별 이용현황 분석을 거쳐 기존에 다소 복잡했던 구조를 간소화하고, 유사 성격의 메뉴는 모둠별로 정리했다.

또한, 사용자들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모바일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한 '반응형 웹' 형태로 개선된 것도 특징이다.

또한, 그동안 분산돼 있던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과 행사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유유자적(悠悠自適, 문화재 활용과 행사 정보)'을 통해 제공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문화재 검색과 간행물 자료를 누리집 첫 화면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티베트역경원 특강 실시

27일부터 티베트어 강좌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겨울방학을 맞아 '현대 티벳어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

티베트어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티베트어 특강은 양승규 동국대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연구원이 초급 티베트어와 중급 티베트어로 나눠 강의한다.

특강은 오는 1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기초반은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중급반은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054)770-2893

신성민 기자

제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2월 29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1979년부터 국내최초로 각종 마이크를 연구, 개발해 전 세계에 수출을 주도해온 음향계의 원로 (해월)김문화가 몇 달간의 법당 실험 후 드디어
모든 스님들께 자신있게 권하는 마이크 –
소장 : 김문화 無線設備技社 제1급아마추어무선사
고성능 마이크 출시!
염불, 법문전용 초 원거리용


탁좌에 꽂은 모양

◆가격 : 175,000원(홀더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 자체 개발한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합니다!

• 60cm이상 떨어져도 맑고 힘있고 장엄하게 울리는 소리에 한번 놀라고!
• 목에 걸어도, 탁좌 스탠드에 꽂고써도, 뛰어난 성능에 한번 더 놀라는 마이크!

본 초 고성능 마이크는 원거리용 고감도, 고성능마이크로, 법당의 탁좌, 또는 좌대의 염불, 법문, 전용으로 행사시 사회자용이나 "찬불가" 용 등 어느곳에 사용 하여도 뛰어난 원음의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에 건 모양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취급품목◆
▪ 최고급 파워드믹싱앰프
▪ 일반 스테레오앰프
▪ 법당 전용 대출력 스피커
▪ 각종 무선 마이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